

11장. 이스라엘의 언약 파괴와 예레미아의 첫째 탄식 (1)

1. 깨어진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 (11:1-13)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시면서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그 언약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11:1-8).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읍과 거리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였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은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섬겼다(11:12-13).

2. 중보 기도를 하지 마라 (11:14-17)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고, 그 사랑하는 자가 ‘다른 신을 섬기면서 행함’하였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와의 집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는 여호와와의 노를 격동하는 일이 되었다. 그러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재앙을 선언하셨다.

3. 예레미아의 첫째 고백 (11:18-12:6)

11장 후반부와 12장 전반부는 예레미아가 하나님께 여쭙는 두 가지 질문이 나온다. 첫째는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언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다.

1) 첫째 질문 (11:18-20)

18 여호와께서 저에게 알려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⁴⁾

그때에 주님께서⁵⁾ 그들의 소행을
저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19 그렇지만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그 열매와 함께 찍어버리자.

그를 산 자의 땅에서 끊어내 버리자.

그리하여 그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⁶⁾ 생각하는 것들을 몰랐습니다.

20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공의의 재판자이시며 마음과 속을 시험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저의 송사를 알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친구인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는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사실을 알려 주셨을 때에 예레미야는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들에게 보복해 주시기를 구하였다.

2) 첫째 대답 (11:21-23)

21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결단코 여호와의 이름

4)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없다. 18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들의 소행’을 목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5) 3인칭 여호와에서 2인칭으로 바뀌었다.

6) ‘알’은 ‘대항하여’라는 뜻인데 ‘해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으로 예언하지 마라.7) 그래서 우리 손으로 죽지 않게 하라” 하고 말하면서 너의 생명을 찾는 아나돗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8)

22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들을 징벌하리라. 젊은이는 칼에 찔려서 죽을 것이고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다.

23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징벌하는 해이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마지막은 아나돗 사람에 대한 재앙으로 끝난다. 아나돗 사람은 예레미야를 싫어하되 그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예레미야는 성전에 나아가서 성전을 의지하지 말라고 전하였는데 성전에서 활동하는 아나돗 사람들은 그러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그들의 청년과 자녀가 죽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11장 익힘 문제

1.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 1) 그 언약은 언제 맺은 것이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4-5절)
 - 2)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8절)
2.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인과 예루살렘에 반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
3. 1) 이스라엘 족속은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또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13, 15절)
 - 2)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데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14절)
4. 1)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하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1절)
 - 2)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까?
 - 3)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벌하신다고 하셨습니까?

7) 부정 금지어로 ‘알’ 이 아니라 ‘로’ 를 사용하여 절대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단코’ 를 첨가하였다.

8) 이 부분은 매끄러운 번역을 위하여 반복한 구절이다.